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2022년 정기학술포럼

# 포스트-미투 시대,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만들기

**2022년 11월 25일(금) 오후 3시-5시 30분**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

2018년 전북 지역 연극계 미투로 문화예술계 내 가부장적 성희롱·성폭력민낯이 드러났다. 미투운동 이후 5년 여 시간이 지난 현재,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기울여야 하는가.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스트-미투 시대, 당시 곳곳에서 들불처럼 피어올랐던 미투를 되짚어보고 전라북도 문화예술계에 성평등 토양을 만들기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본다.

## 사회

전의령(전북대 부설 여성연구소장,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 발표 및 토론

**미학적인 것의 분화: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과 예술다움의 정의**

발표: 허윤(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토론: 박언주(전북대 영어영문학과)

**전북 연극계 미투 이후 5년: 우리에게 남은 것들**

발표: 진명숙(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토론: 구혜경(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미투 이후 지역문화재단의 변화와 과제**

발표: 신인혜(완주문화재단)

토론: 송원(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사업 ‘문화예술다리미’를 돌아보다**

발표: 박진아(팟캐스트 살롱드전북)

토론: 김미진(전북도민일보)

주최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도내 6개 문화재단(전북, 전주, 완주, 익산, 고창, 부안),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협력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 목차

발표 1 허윤(부경대 국어국문학과)	1
미학적인 것의 분화: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과 예술다움의 정의	
토론 1 박언주(전북대 영어영문학과)	15



발표 2 진명숙(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19
전북 연극계 미투 5년: 우리에게 남은 것들	
토론 2 구혜경(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31



발표 3 신인혜(완주문화재단)	35
미투 이후 지역문화재단의 변화와 과제: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토론 3 송원(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63



발표 4 박진아(여성주의 팟캐스트 살롱드전북)	67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학교 다리미를 돌아보며	
토론 4 김미진(전북도민일보)	77



# 미학적인 것의 분화-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과 예술다움의 정의(定義/正義)

2022.11.25.  
허 윤(부경대)

## 목차

1. 미적 판단 기준
2. '김지영'이라는 벡터
3. 해방된 독자에서 저항하는 독자로
4. 새로운 흐름, 새로운 미학
5. 예술다움의 정의

# 1. 미적 판단 기준

- 미적 판단은 무관심(disinterest)할 수 있는가
  - 칸트는 미적 판단은 궁극적으로 자연에 포함된 것으로 언제나 보편성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윤리적, 도덕적인 것으로부터 '무관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 이러한 근대의 미학은 미의 재현이라는 순수 예술(fine art)을 설명하는 미적 판단
- “텍스트가 속여도 속수무책인 시청자에게는 즐거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사회적, 심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과 재현된 등장인물의 관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공감과 거리감의 지점을 찾기 위해 텍스트를 선택적으로 시청할 경우, 아주 큰 즐거움이 있다.”
- 존 피스크, 기호론적 민주주의



## 젠더무감적인? 젠더편향적인!

○ 2018년 초부터 계속된 '미투 고발' 이후 연극뮤지컬계 성폭력 사태에 반대하는 관객 집회나 관객, 독자로서 성평등한 텍스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젠더 무감적인(gender blind) 공간으로 여겨진 연극과 문학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통해 세계를 재해석한다.

○ 이 다시 보기/수정(re-vision)는 페미니스트 비평의 첫 단계이기도 하다. 자신이 경험하는 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이 젠더에 있다는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살펴볼 때 이 광장의 젠더 정치와 한국의 문화예술이 접속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 2. '김지영'이라는 벡터

The image shows two poster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U) promoting research on gender bias. The left poster is for '82년생 김지영' (82 Born Kim Jiyoung) and the right is for '93년생 이진욱' (93 Born Lee Jin-uk). Both posters list research topic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ender Research Center.

**82년생 김지영**  
당신의 내일을  
서울이 연구합니다

- # 신종코로나 방역 대책  
결혼도 출산도 포기 할지  
연말연휴를 위한 출근차량 공급 확대  
어디서도 가능한 것일까?
- #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  
달라지자 기쁘고, 보육이 없자 울컥하는 육종일 어린이집  
모용구 지원 확대(어린이집공급)를 기다리는 부모들
- # 빛바랜 선홍도우미 서비스  
2018년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서비스  
신청 지원금 지원

당신의 내일을 위해 내일연구소 서울이 연구합니다

내일 연구소 서울  
내일연구소 서울

**93년생 이진욱**  
당신의 내일을  
서울이 연구합니다

- # 청년수당  
한달이 두 달도, 이명준과 등  
신종코로나를 위한 지원, 기금, 정책 지원  
문의: 02-762-10000, 02-762-10001
- # 청년 창업자금 지원  
창업에 있어 자금지원은 필수 수단이며,  
내일연구소의 청년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 청년일자리센터  
청년 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문의: 02-762-10000

당신의 내일을 위해 내일연구소 서울이 연구합니다

내일 연구소 서울  
내일연구소 서울



## 팬픽,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하아...나보다 10년이나 어려도 여전히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흐음...난 '72년생 박지현'이라는 책이라도 써야하나...

불현듯 아이를 낳았을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그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고통의 끝에서 움켜쥐었던

머리끝까지 치솟던 분노와 -도대체 신은 왜 여자에게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일까, 도대체 왜 아무도 출산의 고통이 이토록 끔찍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일까 하는- 내가 이토록 고통 받을 또 하나의 존재를 낳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는 안도감의 기억이 슬며시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간다...

딸을 낳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세상은 이렇게나 그대로인걸...

10년이 지나도,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도 이 세상은 변하긴 영영 글렀어.

- 2018년 1월 30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던 글\_부분



##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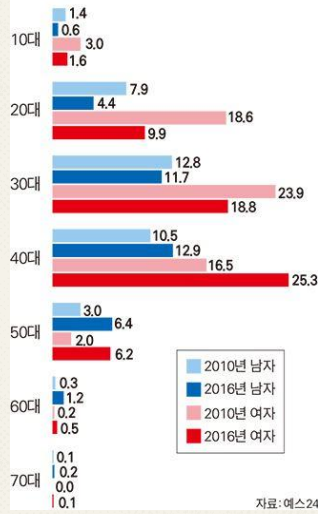
- ▲ 소설적 미학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 ▲ 여자들이 몰입해서 읽는,
- ▲ 예술성이 떨어지는 소설
  
- △ RE-VISION: 되돌아보고,  
참신한 눈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비평의 방향으로  
옛 텍스트에 진입하는 행위
  
- △ 다시 보기와 고쳐 쓰기

## 김지영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 ▲ 인종·민족·종족·종교·성차별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 = 정치적 올바름
- ▲ 정치적 올바름을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이라고 이해해선 안 됨
- ▲ '다락방의 미친 여자'
- ▲ 그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 '김지영'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무고한 희생자일 뿐
- ▲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된 페미니스트 소설

### 3. 해방된 독자에서 저항하는 독자로

2010년, 2016년 소설 구매자 성 연령 추이(단위:%)



제목	인쇄부수
페미니즘·퀴어 소설 인쇄부수 ( )안은 출판사, 발행시기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6-10)	80만부
말에 대하여(민음사, 2017-9)	5만부
현남 오빠에게(다산책방, 2017-11)	4만부
그녀 이름은(다산책방, 2018-5)	3만부
네 이웃의 식탁(민음사, 2018-6)	1만부
여름, 스피드(문학동네, 2018-6)	6000부

자료: 각 출판사(2018.7 기준)

### 보이콧 운동



## 4. 새로운 흐름, 새로운 미학



로맨스 대신 페미니즘을!

### <참고문헌 없음>



#문단\_내\_성폭력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써내려 갈 문학의 이름을, 환경에 종속되고 부여 받는 성질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 (“탈선”)

“이제부터 우리의 서사를 우리가 직접 쓸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우리의 서사를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성미)

# 페미니즘 연극제

**제1회 페미니즘 연극제**  
2018.6.20~7.29

6.20~6.24 이번 상에 페미니스트는 골랐어  
배우: 김민정, 최지영, 최지현, 최지영, 최지영

6.27~7.1 조건만남, 기억이란 사랑보다  
연극: 김민정

6.27~6.28 우애당 미디어의 이동환담회  
주최: 우애당, 이동환

6.28~7.1 마이리노계예술극장  
배우: 김민정, 최지영, 최지현, 최지영, 최지영

7.8~7.7 페미니즘 연극 유람  
배우: 김민정, 최지영, 최지현, 최지영, 최지영

7.11~7.15 환희, 울징, 화상  
배우: 김민정, 최지영, 최지현, 최지영, 최지영

7.19~7.29 노라이름  
배우: 김민정, 최지영, 최지현, 최지영, 최지영

7.19~7.29 이방연애  
배우: 김민정, 최지영, 최지현, 최지영, 최지영

7.21~7.22 Action! 입을 대다  
배우: 김민정, 최지영, 최지현, 최지영, 최지영

7.28~7.28 아담스 미스, Adam's Miss  
배우: 김민정, 최지영, 최지현, 최지영, 최지영

문의: 02-6468-5900

**제5회 페미니즘 연극제**

2022 7.07 목 - 8.07 목  
나온씨어터 선들극장  
에이 인터파크, 네이비

주최 및 주관: 페미니즘 연극제 운영위원회  
후원: NHK, 한국여성재단  
공연장: facebook.com/femplay  
문의: 010-6468-5900 | femfest2022

- 프론트북 극락도
- 임지극장
- 극단문
- 박근호
- 알집극장
- 김희정

# 문화예술계 성폭력 전문강사 양성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알림/소식

**공지사항**

2019년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안내

등록일: 19.07.23 | 조회수: 10

2019년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안내

□ 목적  
○ 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계 종사자 교육을 통해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 교육대상  
○ 예술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종사자 및 협단체 관계자  
○ 신청서 접수 후 30명 규모로 선발 예정

□ 교육장소 및 장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1000-17(00)  
○ 교육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소: 서울 중랑구 신촌로 225 (가좌동 6호선 분당역 입장)

## 벡델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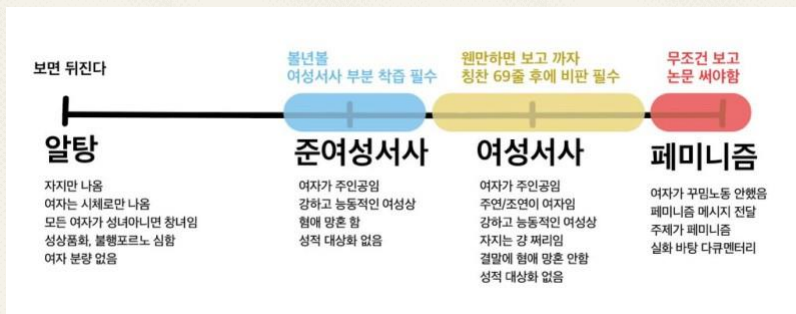
### 벡델테스트



- 1 영화에서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두명 이상인가?
- 2 이 여성들끼리 한번이라도 대화를 하는가?
- 3 그 대화 속에 남자 주인공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주제의 내용이 있는가?



## SNS의 여성서사 논쟁에서 '여자를 돕는 여자'까지



주인공을 비롯한 주연/조연이 여성이고, 강하고 능동적인 여성상을 보여주어야 함  
 연애나 결혼, 성적 대상화 등 성애적 측면을 배제  
 꾸민노동을 거부하고,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로

## ‘캔슬 컬처’ 논쟁

- #문단\_내\_성폭력, ‘김봉곤 사태’(지인과의 사적 대화를 소설에 사용한 문제) 이후 책을 절판시키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옴
- 2016년 이후 한국문단에서 퀴어와 페미니즘이 하나의 장르가 될 정도로 위력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비평은 제 역할을 수행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강동호)
- ‘캔슬 컬처’ 앞에서 ‘비평적 무능력’의 고백 혹은 자인
- 올바르게 못한 창작물이나 창작자 개인을 겨냥한 ‘캔슬 컬처’에 시민사회 내부의 토론과 논쟁을 하지 않고 판단과 집행을 위임하고자 하는 태만함이 자리하고 있다(한영인)

## 무해함이라는 미학



▲ 폭력의 재현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

▲ 폭력이 없는, 성애가 없는 '무해한' 문화예술은 가능한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끔 총을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을 것이고 나를 겨루는 그 총의 방아쇠 앞에는 언제나 손가락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피하려 노력해도 우리가 표적이 되지 않을 방도는 없다.

- 록산 게이, 『나쁜 페미니스트』

### 도덕적인 것? 예술적인 것?

○ 도덕적인 태도에 대한 지지: 거의 없는 기표

- 아이돌은 아이돌답게 연애를 하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른 살이 되면 군대에도 다녀와야 하며, 군 복무를 성실히 임한 경우, 복귀한 뒤 방송용 소재로 써먹을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팬들의 버블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도 아이돌다운 자세다. 이를 어길 경우 그룹의 인기에 해를 미치는 것으로 단정된다.
-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BL 콘텐츠는 동성애를 양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해하다. BL을 즐기는 독자 다수가 이성애자 여성이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 #여성\_대중\_문화

- 여성이 만든 텍스트
- 여성이 나오는 텍스트
- 여성주의적 시각이 포함된 텍스트
- 여성작가는 여성 특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투영한다
- 한 작가의 텍스트는 성에 의해 결정되거나 성에 의해 제약된다
- 여성적인 것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

▲ 성별에 귀속되지 않는 페미니즘 예술은 가능한가?

위대한 당신들을 언니라고 부르는 순간, 당신들이 여자가 되어버리는 게 나는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부르는 나 역시도 너무 높은 확률로 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적잖이 부대깁니다. 적어도 [형님] 정도는 붙여줘야 당신들의 격에도 맞고 내게도 적당히 균형이 맞춰지는 느낌이 드는 건, 내 성 관념이 대단히 비뚤어져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언니를 여자로 만들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반지하, 「나도 한때는 언니들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 창비, 2021, 65쪽.

## 5. 예술다움의 정의

윤이형은 앞으로 어떤 서사를 써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내놓았다.

- ▲ 나는 앞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서사의 중심이 되는 소설을 많이 '써야만' 할까?
- ▲ 앞으로 쓸 내 소설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순응하거나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는 여성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일까?
- ▲ 나는 페미니즘에 입문한 여성 창작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에 대한 어떤 멸시나 비하도 '현실 그대로' 작품에 재현하면 안 되는 것일까? 꼭 필요해서 그런 식의 재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럴 경우, 반드시 거기에 내가 작가로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명시해주어야만 하는 것일까?
- ▲ 이런 고민을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일까, 혹은 각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으로서의 내가 과잉 반영되어 있는 것일까? 혹은 나는 그저 여성 트위터리안-독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까? 그녀들을 '타인'으로 여길 만큼 나는 그녀들에게서 뭔가?

### 소수자를 보편화하기

-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거부: 신화화된 여성성을 해체하는 것이 페미니즘
- 여성/여성성/여성다움을 전면에 내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 성별화를 해체하는 퀴어를 다시 젠더화하는 방식의 읽기
- 퀴어와 페미니즘을 세대론적, 젠더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문화예술적 전회를 논할 때, 퀴어와 페미니즘은 보편에 대항하는 부분이라는 이항대립적 구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포스트-미투 시대,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만들기

허윤 선생님 토론문 (박언주)

11/25 금 3시

선생님의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훑어보면서 제가 평소에 관심 가졌던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제가 제기한 의문들을 자연스럽게 답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다소 오래된 논쟁 중 하나인 참여예술에 관해서입니다. 선생님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20세기 중반 유럽에서 사르트르, 벤야민, 아도르노 등 사이에서 벌어진 참여예술에 대한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아도르노는 사르트르나 브레히트처럼 직접적으로 사회의 한 단면을 드러내거나 이를 통해 변화를 최종적으로 꾀하고 있는 예술을 비난하면서 베케트의 부조리극처럼 현실 세계와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작품이 지니고 있는 자율성이야말로 곧 정치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예술이 대중화되면서 문화 산업이라는 구조 속에 편입되는 과정에 의해 참여예술이 애초에 의도한 정치성마저 모두 잃어버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폭력의 상품화일 것입니다. 과연 여성 주인공과 통쾌한 액션을 앞세운 쿠엔틴 타란티노의 <킬빌> 시리즈나 장철수 감독의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이 재현하는 물리적인 폭력은 어디까지가 여성을 위한 서사이고, 어디까지가 여성의 고통을 다시 아로새기는 것인지 물어보게 합니다.

아도르노의 시각은 <82년생 김지영>이 대중화되는 과정, 그리고 영화와 출판을 통해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게 되는 과정도 함께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벡델 테스트나 소셜 미디어의 여성서사 그래프가 예술을 쉽게 수치화하고 도식화하면서 상품화까지 용이하게 해주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술이 상품화되고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여성 서사만의 정치적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 있을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도르노는 또한 예술이 정치적 목적에 귀속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너무 올바를 경우, 표현과 형식이 단순화되어 예술로서의 가치가 손상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예술성과 정치성 모두를 획득하는 예술의 형식은 표면적으로 정치적 현상과 무관하지만, 실제로는 문화 산업에 포섭되는 않는 주변부적 성향 때문에 전복성을 띄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케트 예시가 시사하듯, 아도르노는 소위 일반 대중에게는 난해한 현대 예술과 그 전복성만을 옹호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리얼리즘에 기초한 예술의 정치적 동력 자체도 무시되는 듯 합니다. 켄 로치의 영화라든지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리얼리즘에 입각한 예술 형식은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자율성을 획득한 예술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예술성과 정치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을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두번째 질문의 확장입니다. 사실 참여예술을 주장했던 벤야민이나 브레히트도 예술의 형식에 대한 고민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주아 문화에 귀속되지 않는 예술의 형식에 대한 고민은 벤야민이 장르의 경계나 작가-독자의 경계를 허문 소비에트의 저널리즘 방식을 극찬하게 했고, 브레히트가 관객과 무대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서사극을 창안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백델 테스트나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여성서사 그래프를 넘어서서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예술의 형식이나 스타일, 장르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을 띠 수 있을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 전북 연극계 미투 5년 :우리에게 남은 것들

---

진명숙(전북대)

---

## 목 차

1. 지역미투를 훑어본다는 것
  2. 연대 (불)가능성
  3. 전북연극협회 '절반'의 노력
  4. '성평등' 기치 내건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탄생
  5. 전북 도내 문화재단, '타의적 추동, 자의적 노력'
  6. 피해 여성예술인의 거부·침묵의 목소리(까지) 듣기
-



## ‘지역미투’를 훑아본다는 것

- 문화예술인의 60% 이상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문화체육관광부 2021: 5)
- 전북 미투 전개, 연대 양상, 미투 이후 변화와 의미, 과제 등을 짚어볼 필요
- 연극인 4명, 성폭력상담전문가 1명, 재단 관계자 1명 심층면담

## 연대 (불)가능성

- 미투 당사자에 대한 지지 연대의 세 층위
  - 1) 직접적인 조력자(동료 배우, 성폭력 상담전문가, 여성활동가 등)
  - 2) 시민연대체(전북 도내 36개 시민사회단체)
  - 3) 피해당사자들끼리의 연대체(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 연대 (불)가능성

---

“시민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자로서, 활동가로서 살 수 있는 것 같다,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씨)

## 연대 (불)가능성

---

- 연대의 어려움
  - 1) 피해 여성에 대한 연극계 조력자들의 피아의 뒤섞임
  - 2) 여성연대체의 명암. 연대체 안에서 정보는 안전한가?

## 전북연극협회 ‘절반’의 노력

- 협회의 사과, 비상대책위 조직, 가해자 제명, 단체 해산 등 즉각적 대응과 조치



## 전북연극협회 ‘절반’의 노력

- 전북 연극계 변화

1) 제도의 변화(내규에 ‘영구제명’ 신설. 미투 관련 조항 신설)

2) 인식의 변화

“주류 세력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는 것은 연극인들에게는 산교육이었을 것이다” (□씨)

“연극계 리더들은 인권감수성, 성감수성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면서 한 번 더 필터링하게 된다”(△씨)

## 한국연극협회 전복지회 제9조

### 제9조(징계)

1. 회원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한국연극협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각 지부의 징계는 지회, 본부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 논의한다.)

④ 미투관련 징계 등에 대한 내부 규정안을 따로 두어 이에 의거에 행한다.

#### <내부 규정의 목적>

세부규정을 만들어 전복지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 또한 미투를 비롯하여 법적분쟁을 또는 언론 보도로 인하여 전복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추락시킨 회원 및 단체에 관한 권리와 징계규정안을 만들기 위함이다.

미투 관련 징계 및 권리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보가 들어올 경우 해당 소속지부는 15일 안에 이사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분쟁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제보시, 제보자와 분쟁당사자의 실명을 밝히되 추후 사건처리에서는 가명으로 진행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진술서를 포함한 최소한의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사, 음성파일, 문서 등) (㉔~㉕ 생략)

## 전북연극협회 ‘절반’의 노력

- 전북 연극계에 대한 아쉬움
  - 1) 가해자 편 조력자의 ‘반쪽짜리’ 공식 사과
  - 2) 연극계 내 ‘담론장’을 마련하였는가?

## 성평등 기치 내건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 전여문에서 함께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지속되기를 바란다. 젠더 감수성 차오른 걸 느껴(☆씨)
- 피해여성들, 곧바로 페미니즘 장착은 불가능. 그러나 여성 연대 의식 형성 (◇씨)

## 성평등 기치 내건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 미투 당사자들의 연대 조직에서 성평등 기치 내건 페미니즘 기반 문화예술단체로.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통해 페미니스트 예술가의 정체화 (☆씨)

2020.8~2021.1	전북여성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수다회 '여기 우리가 있다'
2020.11~12	[전북문화관광재단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지원사업] 에이 이거 그냥 예술이예요
2020.11.24	인권포럼
2020.12.16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포럼
2021.3.13.~14	제1회 전북여성문화예술제 <N의 반란>
2021.4~5/9월/11월	예술+유튜브하기
2021.4.30.~현재까지	선미촌리빙맵협약식, 복합문화예술공간 JAWA운영
2021~2022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2021.9.29.~10.5	제2회 페미니즘예술제 <F연대기>
2022.6.~8	뉴스레터 [주간자와 망.관.부] 발행
2022.9.19.~26	제3회 페미니즘예술제<지구탈출>

저리부터 여성예술인들에 이해의해대해는사  
창작물 속에 차별과 혐오가 ? 필터링  
**요망**

2022년 우리는 더 이상 폭력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전주시립극단 '봄날'**

24일부터 27일까지 전주시립극단은 1984년 초연작이다.  
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는 작년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 '문화예술다리미' 1기를 수료한 'A', '제이제이'와 함께는 설렘과 함께, 작품 배경인 동녀 풍속의 시대착오기 기대하며 작품을 감상했다.  
시대와 달리 작품의 시대착오적 줄거리와 시대적 감에 대한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JAWA 문화다원성공간

2022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 2022/09/19 16:00 개막식

2022/09/19 - 09/26 \* 물왕말2길 3-4

정렬은 페미니즘 풍물이 아니라 페미니즘 고백문 속에서 구미로 페미니즘

WARNING WARNING WARNING WARNING WARNING

전주시사회혁신센터 A110 행정안전부 JAWA 문화다원성공간

# 전북 도내 문화재단 ‘타의적 추동, 자의적 노력’

-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18.3.22)
- <성희롱·성폭력 등에 관한 서약서> 의무화
- 정책간담회 1건(2019.12.16), 연구용역 1건(2020.12)



###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 ‘문화예술 다리미’ 참여자 모집

평등한 사회의 일익 문화예술분야를 지속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성평등예술비평학교

**접수기간**  
05.10 (월)  
~  
05.21 (금)

**모집인원**  
15명 내외

**문의전화**  
063.262.3955  
민주문화재단  
행정기획팀  
\*평일 09:00~18:00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림  
\*신청 후 이메일 제출  
(mailto:wfafac.or.kr)

일차	날짜	내용	강사	장소
1	05.10(월)	신뢰와 배려의 문화예술비평의 역할과 중요성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문화예술 센터
2	05.11(화)	예술과 시민의 역할 및 사회적 책임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문화예술 센터
3	05.12(수)	예술과 시민의 역할 및 사회적 책임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문화예술 센터
4	05.13(목)	문화예술비평의 사회적 역할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문화예술 센터
5	05.14(금)	문화예술비평의 사회적 역할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문화예술 센터
6	05.15(토)	문화예술비평의 사회적 역할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문화예술 센터
7	05.16(일)	문화예술비평의 사회적 역할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문화예술 센터
8	05.17(월)	문화예술비평의 사회적 역할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문화예술 센터
9	05.18(화)	문화예술비평의 사회적 역할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문화예술 센터
10	05.19(수)	문화예술비평의 사회적 역할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문화예술 센터

###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학교

#### 문화예술 다리미 심화과정 참여자 모집

평등한 사회의 일익 문화예술분야를 지속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문화예술인

**접수기간**  
2022. 8. 8(월) ~ 8. 25(목)  
\*평일 09:00~18:00

**모집인원**  
10명 내외

**모집대상**  
1. 2021년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모집대상 다리미 수료생 1세대(접수생) 및 2세대 문화예술비평을 지속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문화예술인  
\* 1세대 지원(2021년 모집생) 제외  
\* 2세대 지원(2022년 모집생) 제외

**신청방법**  
고창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부합인증센터, 전북 가정형 양성평등센터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jarlistcenter@paj.com)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연락 있음

**내용**  
성평등 시각에서 문화예술비평을 위한 해체강연, 연드링, 연워크숍 등 심화과정 운영

일차	날짜	내용	강사	비고
1	8. 27(수)	문화예술비평의 역할과 중요성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연대교육
2	9. 3(토)	문화예술비평의 역할과 중요성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연대교육
3	9. 10(토)	문화예술비평의 역할과 중요성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연대교육
4	9. 17(토)	문화예술비평의 역할과 중요성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연대교육
5	9. 24(토)	문화예술비평의 역할과 중요성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연대교육
6	10. 1(토)	문화예술비평의 역할과 중요성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연대교육
7	10. 8(토)	문화예술비평의 역할과 중요성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연대교육
8	10. 15(토)	문화예술비평의 역할과 중요성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연대교육
9	10. 22(토)	문화예술비평의 역할과 중요성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연대교육
10	10. 29(토)	문화예술비평의 역할과 중요성	김민희(전라북도문화재단)	연대교육

문의: 문화예술비평센터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T. 065-250-7428

## 전북 도내 문화재단 ‘타의적 추동, 자의적 노력’

-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21.2~현재),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2019~2020. 문화디자인 자리 운영)의 영향을 받음.



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역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다**

마침내 변화를 만든다

**전북지역 원탁포럼**

2019년 11월 8일 (금) 16:00 ~ 19:00  
말북예술공간 이팝나무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봉동1길 46

이후 이후 문화예술계의 실태와 현황을 공유하고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를 탐구하는 자리

**포럼 세부일정**

좌 장 :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시간	프로그램	참여자
16:00-16:10	참여자 및 내빈 인사	이리선영(문화디자인자리 사업팀장)
16:10-16:30	박종발 이후 이후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이슈의 진행과정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16:30-17:10	시 선1 지역 예술가의 현실과 실천 이슈 시 선2 성평등에 대한 지역의 자각	송 원 (전북문화예술인연대) 고운정 (부신문화재단)
17:10-18:00	원탁포럼 우리 모두의 소리 : 상호 문제의식 발화	전체 참여자
18:00-18:50	성평등을 말하는 식탁	
18:50-19:00	테이블 별 발표 및 마무리	

관람문의 : 문화디자인자리 02-2009-6253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전북 <성 평등 관점으로 문화재단 사업보기>



출처: 문화디자인  
자리

## 전북 도내 문화재단 ‘타의적 추동, 자의적 노력’

### •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의 의의

- 1) 도내 6개 재단의 자발적, 주체적 노력 가시화
- 2) 재단 내 점차 성평등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 인식
- 3) 문화예술 부문 ‘젠더거버넌스’ 실천



<p>이화고등학교문화재단 이사장 유기광</p>	<p>이화중학교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상덕</p>	<p>이화여자대학교문화재단 대표이사 문진호</p>	<p>이화여자대학교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기원</p>
<p>전북대학교부설여성연구소 소장 신복주</p>	<p>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대표 송원</p>	<p>전북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백옥선</p>	<p>지식공공성 지킴이센터 대표 김은혜</p>

## 피해 여성예술인의 거부·침묵의 목소리(까지) 듣기

---

- 미투는 ‘발화의 수행성’을 보여준 강력한 사건. 하지만 타-장르의 미투없음, 피해 여성의 거부·침묵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
- 스피박(1988), 서발턴 여성의 말하기는 투명하지도, 온전히 주체적이지도 않음. 공적 담론, 공적 언어 체계(인식소적 폭력)에서 여성의 발화는 굴절됨. 그림자를 드리운 말.
- 말을 둘러싼 거부, 침묵의 목소리까지 헤아려 들어야.  
“듣기의 윤리”(김애령, 2020)

---

감사합니다

---



## ‘전북 연극계 미투 이후 5년: 우리에게 남은 것들’ 에 대한 토론문

구 해 경(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1. 2022년 11월 16일 오후 13시 30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청사 앞에서는 ‘#METOO 가해자 방조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의 주체는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한 40개 단체이다. 회견내용은 본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2018년 전북 연극계 미투사건의 가해자가 최종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학교로 복직했고, 2022년 전북재단의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의 선정단체 작품의 연출을 맡은 것에서 시작한다. 2018년 전라북도를 뜨겁게 달궜던 미투의 가해자는 다시 문화예술계로 서서히 복귀하고 있고, 조력자들은 2차 피해를 지속하고 있는데 전북재단은 이를 방조하면서 공적 지원을 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북 연극계의 미투 이후 5년 간 여러 주체의 노력과 변화를 모색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넘기 힘든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 또한 회견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재발방지대책과 2차 피해 예방대책 수립은 행정절차의 어려움이나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2. 서두에서 최근의 상황을 먼저 밝힌 이유는 토론을 맡은 연구 주체가 전북 연극계의 미투 이후 5년 간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어쩌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우리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생각과 함께 본 연구의 주제는 시의적절한 담론을 던지고 있어 의미가 크다.
3. 본 연구의 목적은 미투 이후 5년 간 전북 연극계의 변화지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북에서 미투가 처음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훑어내고 있고, 그 가운데 다양한 주체의 활동 양상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우리의 행보를 읽어낼 수 있었고, 다시금 성찰적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야할지 기대가 되기도 한다.
4. 지금까지 토론자의 개인적인 감성을 풀어냈다. 문화재단의 종사자로서 일련의 상황들과 맞닿아 있으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과 함께 연구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관점은 피해자 중심의 시선에서 서술되고 있다. 물론 미투라는 거대한 사회적 파장 속에서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은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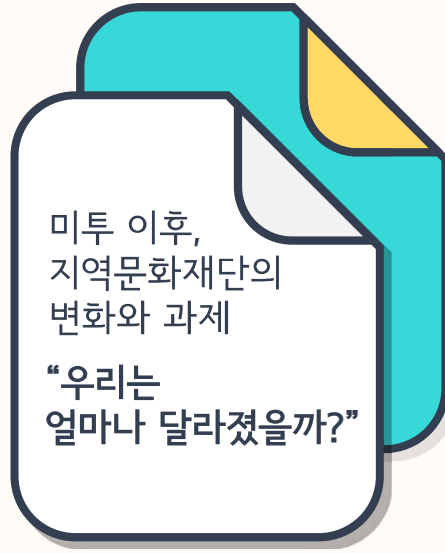
끌어내고 있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호명과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구의 풍부한 논의를 위해서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 조력자들의 관점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쪽에서 가해자 조력자들의 행위를 짧게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연구자는 가해자나 가해자 조력자가 미투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어떤 시선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연구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한다.

둘째, 마지막 장은 현재 진행형의 설명방식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다. 내용 중에서 가부장적 공적 세계가 구조적으로 내부의 타자를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언어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점과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언제나 그 뒤에 말해지지 않는 것과 공존한다’는 내용을 볼 때,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은 진행중인 연구라는 생각이 든다. 연구자의 후속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궁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서발턴의 목소리를 굴절시키지 않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연구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포스트-미투 시대,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생태계 만들기



신인혜  
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오래 작업하고 싶습니다.”**

2019 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 '미투 이후, 지역에서 성평등을 이야기 하다' 전북 포럼  
참여예술인의 이야기 중에서

그리고, 계속된 질문

**무엇이 이들을 지역에서 행복하게  
오래 작업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가?**





## 시작하기 전에

# “우리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오래 작업하고 싶습니다.”

2019 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

‘미투 이후, 지역에서 성평등을 이야기 하다’ 전북 포럼 참여예술인의 이야기 중에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1. 전라북도 미투 운동 당시, 문화재단의 대응은 어떠했을까?
2. 지금, 문화재단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3. 성평등한 지역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문화재단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과 문화재단의 대응

2016

###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시작

- 2016년 SNS를 통해 '#OO계내\_성폭력' 이라는 키워드로 시작. 피해예술인의 신원을 숨기고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를 고발하여 그가 속한 예술계로 하여금 공동체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후에도 대부분의 미투 운동은 SNS를 통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방식을 유지함

2018

###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 왜 피해예술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냈는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은 SNS를 통한 폭로가 아닌 직접 언론에 피해 사실을 밝히거나 형사고소를 취하는 등 피해예술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진행
- 2차 피해를 감수하고 피해예술인이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지역문화예술계의 폐쇄성과 견고한 수직적 권력구조 속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될 수 없었기 때문



## 지역문화예술계의 특수성

### ■ 지역의 연계성과 문화예술계의 폐쇄성

- 지역문화예술계는 학연, 지연, 등으로 문화예술활동 뿐만 아니라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진예술가의 경우 활동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대표, 교수 등 지역문화예술계 원로(어른)으로 불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호명되어야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음

### ■ 지역문화예술계의 수직적 권력 구조

- 소수의 기득권에게 호명되어야 문화예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고용과 활동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은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권력 관계에 놓임
- 가해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문화예술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드러내기 어려움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 ■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그리고 지역문화재단

-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은 '권력형 성폭력'에 저항하고, 지역문화예술계에 성평등 인식을 촉구하는 운동이었음
- 2016년부터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시작됐지만, 2018년에도 지역문화재단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결국 지역문화재단은 피해예술인과 연대예술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함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 ■ 문화예술계 안에서 지역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 문화재단은 안전한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함

- **지역의 경우 지원사업을 통한 작품활동의 비중이 높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구매·소비하는 문화는 보편화 되어있지 않음**

(2019년 지역예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0%가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술작품 판매 및 티켓 수익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예술창작 및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만큼, **문화재단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의 시작

### ■ 예술인, 학계, 문화재단이 함께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고민하다

- 2019년 '미투 이후, 지역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다' 전북지역 포럼 이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문화예술계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함

- 2020년 전라북도 5개 문화재단(전북, 고창, 익산, 완주, 전주)과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가 함께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가칭) 준비모임' 구축

: 여성문화예술인수다회 - 지역여성문화예술인 목소리 모으기

: 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워크숍 - 성평등 관점으로 문화재단 사업 다시 보기

: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포럼 - 행정, 문화재단,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제안

➔ **성평등한 지역문화예술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문화재단의 변화 과제 도출**



## 성평등 문화예술계 조성을 위한 과제(2020)

### ■ 문화재단의 역할

- 지역 내 성평등 문화확산, 성평등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선언

### ■ 지원사업에 성평등 가치 지향 반영

- 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서약서, 교육 의무화
- 지원사업 안내 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명문화
- 성평등한 심의(심사) 과정 운영
  - : 심의위원 구성 시 성비, 연령, 성평등, 문화다양성 등 여러 가지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
  - : 지원자와 심의위원이 상호 존중하는 인권 중심 심의과정 지침 제시 및 운영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규정 마련(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지원, 가해자 제재 방안 등)



## 성평등 문화예술계 조성을 위한 과제(2020)

### ■ 문화재단 운영 및 전체 사업으로 성평등 정책 확장

-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 재단 임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
- 재단 내 성평등위원회 조직 및 운영 : 재단 운영 및 사업 전반, 심의위원 구성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모니터링, 지속적 개선 노력
- 문화재단과 성평등 전문기관, 성희롱·성폭력 전담 지원센터 연계 체계 마련

### ■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논의체계 마련, 협력사업 추진

- 예술인, 학계, 관련 분야(인권, 여성 등) 기관·단체,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체가 모인 네트워크 구성
- 지역문화예술계 창작환경 변화, 성평등 인식 확산, 성평등 정책 발굴, 협력 사업 실행 등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 관계 구축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 2021~2022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 예술인, 민간, 학계,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재단의 변화 과제를 도출했으며, 지역 내 성평등 인식 확산 및 성평등한 문화예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협력사업(성평등문화예술비평학교, 포럼 등) 진행 중

### ■ 네트워크, 그리고???

- 2020년 도출했던 성평등한 문화예술계 조성을 위한 과제는, 재단의 변화를 촉구하는 지역과 예술인의 목소리이기도 했음
- 이러한 목소리는 현재 재단 사업과 운영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을까?

**전북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5년, 지역문화재단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2021-2022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 분석

### ■ 전라북도 미투 운동 이후 5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2018~2020 문화재단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 분석(2020) 결과를 바탕으로 2021~2022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 구성 변화**를 살펴보고, **재단 내 성평등한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규정 도입 여부**를 살펴봄
- 이번 조사는 재단 전체 사업이 아닌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직결되는 예술인창작지원사업을 조사 범위로 한정**했으며, 재단 정책 규정 도입 여부 설문 역시, **재단 전체 임직원이 아닌 성평등 네트워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약식 조사**로 이루어짐
- 이 결과를 재단 전체로 일반화하기보다는, 현재 지역문화재단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살펴보고자 함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심의위원 구성 변화

2021-2022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 분석 결과

### ■ 심의위원 성별

구분	2018~2020		2021-2022		특정 성(남성) 증감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223	100	195	100		
전북 전체	남성	158	70.9	133	68.2	-2.6
	여성	65	29.1	62	31.8	
A재단	남성	16	76.2	10	55.6	-20.6
	여성	5	23.8	8	44.4	
B재단	남성	22	81.5	15	50	-31.5
	여성	5	18.5	15	50	
C재단	남성	18	58.1	42	75	16.9
	여성	13	41.9	14	25	
D재단	남성	102	70.8	57	70.4	-0.5
	여성	42	29.2	24	29.6	

- 특정 성(남성)의 비율 : **68.2%**
- 2020년 조사 결과에 비해 **2.6%** 낮아졌으나 여전히 특정 성(남성)비율이 **60% 이상**임
- 실제 2021~2022 심의위원은 총 212명이나 17명의 성별이 파악되지 않아 통계 인원에서는 제외함
- 재단별 분석에 의하면 특정 성(남성) 비율이 **60% 미만인 곳은 A재단(55.6%), B재단(50%)** 두 곳으로 파악됨
- A재단과 B재단은 이전 조사에서 각각 특정 성(남성) 비율이 **76.2%, 81.5%**로 몰림 현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50%대로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음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심의위원 구성 변화

2021-2022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 분석 결과

### ■ 심의위원 성별

구분	2018~2020		2021-2022		특정 성(남성) 증감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223	100	195	100		
전북 전체	남성	158	70.9	133	68.2	-2.6
	여성	65	29.1	62	31.8	
A재단	남성	16	76.2	10	55.6	-20.6
	여성	5	23.8	8	44.4	
B재단	남성	22	81.5	15	50	-31.5
	여성	5	18.5	15	50	
C재단	남성	18	58.1	42	75	16.9
	여성	13	41.9	14	25	
D재단	남성	102	70.8	57	70.4	-0.5
	여성	42	29.2	24	29.6	

- A재단 : 2021년, 2022년 여성 심의위원 비율 **44.4%** 동일
- B재단 : 여성 심의위원 비율 2021년 **61%**에서 2022년 **41%**로 감소(평균 50%)
- C재단 : 2018-2020 조사에서 유일하게 여성심의위원 비율이 41.9%로 특정 성 몰림 현상이 가장 적었으나, 2021-2022년의 경우 25%로 감소하며 특정 성(남성) 비율이 가장 높아짐(특정 성 비율 75%)
- 예술인창작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지역 문화재단 중 여성 심의위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곳은 없음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심의위원 구성 변화

2021-2022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 분석 결과

### ■ 심의위원 연령

- 특정 연령(50~60대) 비율 : 71.1%

2020년 조사 대비 3.2% 증가

구분	2018~2020		2021-2022		증감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223	100	212	100		
전북 전체	30대	4	1.8	3	1.4	-0.4
	40대	41	18.4	41	19.3	1.0
	50대	89	39.9	92	43.4	3.5
	60대	69	30.9	65	30.7	-0.3
	70대 이상	17	7.6	11	5.2	-2.4
A재단	30대	2	9.5	3	16.7	7.1
	40대	4	19	7	38.9	19.8
	50대	10	47.6	7	38.9	-8.7
	60대	5	23.8	1	5.6	-18.3
	70대 이상	-	-	-	-	-

구분	2018~2020		2021-2022		증감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B재단	30대	-	-	-	-	-
	40대	1	3.7	7	23.3	19.6
	50대	10	37	8	26.7	-10.4
	60대	12	44.4	12	40	-4.4
	70대 이상	4	14.8	3	10	-4.8
C재단	30대	2	6.5	0	0	-6.45
	40대	8	25.8	12	21.4	-4.38
	50대	14	45.2	24	42.9	-2.3
	60대	6	19.4	19	33.9	14.6
	70대 이상	1	3.2	1	1.8	-1.4
D재단	30대	3	2.1	0	0	-2.1
	40대	28	19.4	14	14.3	-5.2
	50대	55	38.2	46	46.9	8.7
	60대	46	31.9	31	31.6	-1.2
	70대 이상	12	8.3	7	7.1	0.3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심의위원 구성 변화

2021-2022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 분석 결과

### ■ 심의위원 연령

- 전체 연령별 분포 : 50대 43.4%, 60대 30.7%,

40대 19.3%, 70대 5.2%, 30대 1.4%

- 30~40대 심의위원의 경우 20.2%에서 20.7%로 0.5% 증가

- A재단의 경우 이전 조사에서 50대 47.6%, 60대 23.8%로 50~60대 비율이 높았으나,

2021~2022년 조사 결과 40대-50대가

각각 3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0대의 경우 16.7%로 전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경력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의

심의위원 구성 변화 시도가 짐작됨

- B재단의 경우 40대 비율이 3.7%에서 23.3%로

19.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0대 심의위원이 없고, 이전 조사와 같이

60대 위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C,D재단의 경우 이전 조사에서 50~60대 위원이

각각 64.6%, 70.1%로 조사되었는데,

2021~2022년 조사에서 C재단은 76.8%, D재단은

78.5%로 증가하고, 30~40대 위원은 감소함

- 예술인창작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작품 활동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심의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

대표성을 세분화 하여 인력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심의위원 구성 변화

2021-2022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 분석 결과

### ■ 심의위원 활동 분야

구분	2018-2020		2021-2022		증감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223	100	212	100		
분야	문학	6	9.0	31	14.6	<b>5.7</b>
	시각예술	30	<b>44.8</b>	68	<b>32.1</b>	-12.7
	공연예술 (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등)	22	<b>32.8</b>	60	<b>28.3</b>	-4.5
	다원/문화일반 등	9	13.4	53	25.0	<b>11.6</b>

- 시각·공연 심의위원 : 77.6%에서 60.4%로 감소 (-17.2%)
- **문학·다원·문화일반 심의위원** : 22.4%에서 39.6%로 **17.3% 증가**

- 예술인의 활동 장르에 맞춘 심의위원 구성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예술인의 활동 장르와 심의위원 활동 분야가 적절하게 매칭되어 있는지는 지원사업 신청 예술인 자료와 비교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심의위원 구성 변화

2021-2022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 분석 결과

### ■ 심의위원 활동지역

구분	2018-2020		2021-2022		증감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223	100	212	100	
도내	145	65.0	138	65%	0
도외	78	35.0	57	35%	0

- 심의위원의 활동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연계성이 강한 지역문화예술계에서 네트워크에 의한 심의를 배제하고, 지역문화예술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심의위원의 **도내, 도외 비율은 65:35로 이전조사와 동일함**
- 지역문화예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 도내 위원의 구성이 필요하나,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문화예술을 다시 보고, 지역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도외 심사위원의 참여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심의위원 구성 변화

2021-2022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 분석 결과

### ■ 심의위원 심의 참여 횟수

구분	2021-2022	
	인원	비율
전체	212	100
1~2회	178	91.3
3~4회	17	8.7

- 심의에 1~2회 참여한 심의위원이 91.3%로 조사 되었으나 2018~2020 심의 참여 여부를 포함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3~4회 이상 참여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심의위원 분석 데이터를 통해 심의 횟수가 많은 심의위원의 경우 같은 사업에 대한 연속심사 혹은 재단 내 다수 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심의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심의위원의 중복·연속 심의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심의위원 구성 변화

2021-2022 예술인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 분석 결과

### ■ 심의위원 구성 변화

- 심의위원의 특정 성(남성), 연령(50~60대)의 편중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활동 분야의 경우 문학, 다원, 문화 일반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위원이 증가하며 장르 편중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임
- 누가 예술인의 작품활동을 심의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보는가에 따라서 심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성평등 관점, 다양성을 반영한 심의위원 구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
- 지역예술인의 작품활동을 섬세하게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도내·외의 분야별 심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될 필요가 있음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문화재단의 변화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재단 관계자 대상 약식 설문결과

### ■ 성희롱·성폭력 대응 규정

조사문항	답변			
	있다		없다	
지원사업 운영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단 대응 규정이 있다 (내부 규정, 지침, 매뉴얼 등)	2	33.3%	4	66.7%
재단 내 성평등위원회가 조직·운영되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	
	2	33.3%	4	66.7%

- 전북권 6개 문화재단 중 **4곳**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규정이 없으며, 재단 내 성평등위원회 역시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자체 대응 규정이 있고, 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는 문화재단은 **6곳 중 1곳**으로 파악됨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문화재단의 변화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재단 관계자 대상 약식 설문결과

### ■ 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

조사문항	답변			
	그렇다		아니다	
재단 내 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5	83.3%	1	16.7%

-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협력 사업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 일부 재단의 경우 자체 성평등 사업을 위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재단의 경우, 예산 변경을 통해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예산을 매칭하고 있음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문화재단의 변화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재단 관계자 대상 약식 설문결과

### ■ 지원사업 운영 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

조사문항	답변			
	그렇다		아니다	
지원사업 참여예술인에게 성희롱·성폭력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4	66.7%	2	33.3%
	그렇다		아니다	
지원사업 참여예술인에게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2	33.3%	4	66.7%
	그렇다		아니다	
지원사업 공고문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조치 방안을 명문화하고 있다	0	-	6	100%
	그렇다		아니다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2	33.3%	4	66.7%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문화재단의 변화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재단 관계자 대상 약식 설문결과

### ■ 지원사업 운영 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

-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서약서 제출 및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음
- 그러나 전북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재단은 4개**이며, **성희롱·성폭력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재단은 2개**로 조사됨
- **서약서 제출과 교육 이수를 모두 의무화 하고 있는 재단은 2곳**으로 파악됨
- 지원사업 공고 시 **안내자료에 성희롱·성폭력 서약서가 포함된 경우는 있었으나** 사건 발생 시 조치 방안, 제재방안을 명문화하여 기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문화재단의 변화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재단 관계자 대상 약식 설문결과

###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제재조치 여부

조사문항	답변			
	그렇다		아니다	
재단 내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지원금 제재조치(환수, 취소 등)가 있다	2	33.3%	4	66.7%
재단 내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향후 사업지원 제재조치(예 : 향후 oo년간 지원사업 참여 불가)가 있다	2	33.3%	4	66.7%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는 문화재단은 2곳에 불과해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재단 관계자 대상 약식 설문결과

###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 과정에서 어려운 점(1,2,3순위 선택)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 과정에서 어려운 점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중요도	긴급도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재단 자체 대응 매뉴얼 없음	9	4	0	13	1	1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없음	6	0	3	9	3	2
③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응 매뉴얼 없음	0	2	2	4	4	-
④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부족	3	6	1	10	2	3

\* 중요도 :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으로 점수 책정, 선택 점수를 종합하여 총점을 계산하고, 총점이 높은 순으로 정리함

\* 긴급도 : 1순위 선택이 높은 순으로 정리함



##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재단 관계자 대상 약식 설문결과

### ■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대응 과정에서 어려운 점(1,2,3순위 선택)

- **긴급도·중요도 1순위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단 자체 대응 매뉴얼 없음'**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응답한 재단에서도 같은 응답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대응 가능한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함**을 짐작하게 함
- **긴급도 2순위, 중요도 3순위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없음'**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재단이 직접 피해 사실을 조사하거나, 심리·법률 지원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전문기관·인력과의 연계 필요**
- **긴급도 3순위, 중요도 2순위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방안 부족'**
- 지역문화예술계의 폐쇄성과 강한 연계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재단 관계자들도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또한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재단 관계자 대상 약식 설문결과

###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점(1,2,3순위 선택)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점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중요도	긴급도
① 재단 자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규정(매뉴얼)	9	2	1	12	1	1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피해자 상담, 법률 자문 등)	6	0	1	7	2	2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과의 연계	0	0	2	2	6	-
④ 지역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0	6	1	7	2	-
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	3	2	1	6	4	3
⑥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	0	2	0	2	6	-



##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재단 관계자 대상 약식 설문결과

###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점(1,2,3순위 선택)

- **중요도·긴급도 1순위 : '재단 자체 성희롱·성폭력 대응규정(매뉴얼) 마련'**  
재단 실무자 입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재단 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즉각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함
- **중요도·긴급도 2순위 : '사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피해 사실의 조사,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긴급도 3순위·중요도 4순위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과정에서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긴급도 순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중요도 공동 2순위 : '지역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중요도를 판단하는 종합 점수에서는 2순위로 분석됐으나, 긴급도를 판단하는 1순위 응답은 없었음  
재단의 대응보다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됨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성평등 관점 반영

#### ● 지원사업 심의위원 구성의 다변화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 방통위·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권고(2019.2.7.)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정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60% 이상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기준, 선거법 개정 권고(2022.5.12.)

→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소수인 성별의 대표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

- 지원사업의 심의위원 역시 **소수인 성별, 장르, 연령의 대표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특정 성별, 장르, 연령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대표성을 세분화하는 등 기존의 경력 중심의 심의위원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성평등 관점 반영

#### ● 성평등하고 안전한 심의과정 진행

- 심의위원의 다양성 만큼, 심의과정에서의 상호존중 문화 역시 중요함. **심의과정은 지원자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예술관과 작품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임**
- 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 및 지원자에게 성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심의진행에 대한 안내 필요**
- 완주문화재단의 경우 내부 안내사항을 만들어 심의 시작 전 심의위원에게 안내문을 직접 육성으로 읽어주고 있으며, 지원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함
- 이를 통해 **심의위원과 지원자 모두 심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인식하고 심의에 참여하게 됨**
- 유의사항을 안내한 이후, 심의 내용이 예술인의 작품과 활동에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심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성평등 관점 반영

#### ● 성평등하고 안전한 심의과정 진행

##### [완주문화재단] 심의 진행 시 유의 사항 안내

- 평가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심의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표정으로 가점·감점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 점수로 합니다.
-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평가대상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일방적인 답변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일방적인 답변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르기 식의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평가대상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신체조건, 혼인, 출산, 육아 계획, 성별 고정관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심의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질문사항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 심의과정에서 특정 성별의 지원자에게만 답변 기회를 더 주지 않습니다.
- 특정 성별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 성별에 따른 편견이 개입된 질문이나 사업진행과 무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성평등 관점 반영

#### ● 성희롱·성폭력 예방서약서 및 교육 이수 의무화

○ 예술 생태계 안에서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강화합니다.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확인 및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선정단체 대상 지원금 교부 전 강화된 서약서 및 성평등 행동강령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성희롱·성폭력 혐의가 있는 자 및 단체는 지원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1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안내]

-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사업참여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직접 동의한 서약서 제출은 매우 중요하며,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교육은 기존의 불평등한 작업환경 및 과정을 성평등 관점에서 다시 보고,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주요 내용

- 성희롱·성폭력 교육 의무 실시(이수확인서 제출)
-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사업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
- 서약의 내용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 감수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아르코공공예술(주제심화형)에 참여하는 본 (재)완주문화재단 은/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 전원(프리랜서 포함)이 예방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확인서 양식은 보조금 교부 시 제공)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분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켜질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성평등 관점 반영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사업참여 제재 규정 마련 및 공고(안내)문에 내용 게재

#### [2021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안내]

○ 예술 생태계 안에서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강화합니다.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확인 및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선정단체 대상 지원금 교부 전 강화된 서약서 및 성평등 행동강령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성희롱·성폭력 혐의가 있는 자 및 단체는 지원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지원신청 부적격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성평등 관점 반영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사업참여 제재 규정 마련 및 공고(안내)문에 내용 게재

- 2021 문예진흥기금 설명자료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 제재 조치 등을 명문화**하고,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내용은 지원사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재단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일이 기도 함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성평등 관점 반영

- 지원사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근절 조항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⑥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5.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5호의 취지는, ‘미투 운동’ 이후 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노력 및 대응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그 대응 방안의 하나로 문체부에서는 기존 공연·출판·만화·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 내 성범죄 관련 조문(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계약해지 권리 명시 등)을 명문화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중]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성평등 관점 반영

- 지원사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근절 조항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 현재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계약서 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은 지역문화예술인의 인권을 지키고,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지원사업 내에서의 계약 외에도 문화재단 사업 전반의 계약 진행 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성평등 관점 반영

- 지원사업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규정(지침) 마련
  - 신고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제재조치 등을 포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주요 내용
  -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사업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
  - 서약의 내용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 감수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성평등 관점 반영

- 지원사업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규정(지침) 마련
  - : 신고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제재조치 등을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 포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를 의무 제출해야 함
  - 서약서 내용을 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음
  - 중앙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있으나,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정책, 규정이 없음
  - 안전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및 성평등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에서도 지원사업 내 성희롱·성폭력 조사, 징계, 제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Q. 꼭 지역문화재단이 직접 조사·대응해야 하나요?

-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위원회를 통해 심의, 징계를 진행하는 체계가 마련됨
- 신고 접수 및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예술인복지재단과 조사를 진행하는 예술인보호관은 전국에서 접수되는 사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조치가 늦어질 수 있으며, 대응 과정에서 지역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함**
- 이미 각 문화재단에는 재단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대응 규정이 있으며, 형사고소, 법적처벌과는 별개로 자체 조사와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있음
- **초기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성 상 재단의 임직원 규정에 준하는 지원사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신고 접수, 전문인력과의 연계를 통한 조사,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제재조치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Q. 꼭 지역문화재단이 직접 조사·대응해야 하나요?

[참고] 완주문화재단 제규정

제58조의 2(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 ① 임용권자는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며, **범죄혐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59조의 3(징계양정기준)

1.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3.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Q. 문화재단이 가해자 제재를 해도 될까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Q. 문화재단이 가해자 제재를 해도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Q. 문화재단이 가해자 제재를 해도 될까요?

[참고 : 형실효법]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料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년

3. 벌금: 2년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Q. 문화재단이 가해자 제재를 해도 될까요?

○ 예술 생태계 안에서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강화합니다.

성희롱·성폭력 혐의가 있는 자 및 단체는 지원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지원신청 부적격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2021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안내]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Q. 문화재단이 가해자 제재를 해도 될까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 위반 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형실효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단순 구성원, 회원인 경우는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의하면 수사 및 기소 중인 경우에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과 같이 별도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원선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문화재단 운영 및 전체 사업으로 성평등 관점 확장

#### • 문화재단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

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 등

#### • 재단 내 성평등위원회 조직 및 운영

재단 운영 및 사업 전반, 심의위원 구성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모니터링, 지속적 개선 노력

#### •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지역 연계체계 마련

재단 사업운영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전문기관, 성희롱·성폭력 전담 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체계 마련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 지역문화재단의 과제·제안

### ■ 성평등한 지역문화예술계를 위한 연대·협력 지속

- 현재 전북권 6개 문화재단(고창, 부안, 완주, 익산, 전북, 전주)과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지배배배가 함께하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는 민간, 공공, 학계 등 문화예술, 성평등과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성평등한 지역문화예술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인, 젠더 전문가, 문화재단, 지자체, 행정 등 정책을 도입하고, 현장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가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 각자의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를 통해 전북 문화예술현장의 이슈를 놓치지 않고, 공동 대응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함**



## 언젠가 우리는

### “우리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오래 작업하고 싶습니다.”

2019 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 '미투 이후, 지역에서 성평등을 이야기 하다' 전북 포럼 참여예술인의 이야기 중에서

2019년, 우리를 만나게 했던 그 목소리가  
머지않은 언젠가 이렇게 들려 오기를 기대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

우리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오래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





## 미투 이후 지역문화재단의 변화와 과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과제를 중심으로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송원

가해자가 창작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반성과 쇄신 없이 공적지원금으로 창작행위를 하는 조용한 복귀가 시작된 것이다. 2018년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미투를 나열하다보면 가해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눈에 띈다. 대부분 대표, 연출자, 교수, 감독 등 예술단체 내 결정권자 위치라는 직위, 가해자1인과 다수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이는 앞 발제에서도 요약했듯이 지역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인 폐쇄성과 수직적 권력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 특수성이 함의하는 바는 그들이 단체나 그룹, 혹은 예술공동체의 경제적 부양자였다는 지점이다. 즉, 가해자의 활동중단이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어려움, 커리어 단절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술공동체를 굳건히 유지하고 자신의 작품활동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가해자의 가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없던 일인양 지켜야하는 비밀이 되기도 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가해를 정당화하기도 해야 했던 집단 내 2차피해로 이어졌던 것이다. 가해자와 연고가 없는 예술인들과 시민들은 가해자를 규탄하며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며 with you를 말했지만 가해자로 인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분열되고 즐지에 창작현장을 잃은 예술인은 누구에게 화살을 들렸을까?

지역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가장 큰 자원이며 구성원이고 때로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술시장이 부재한 전라북도의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보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기에 대부분의 보조금을 집행, 기획, 지원하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방대하다는 것을 통감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계 어떤 고리에 보조금이 가달아야 하며, 어떤 고리에 보조금이 편중되는지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할 책임도 크다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 이후 관리와 감독, 환류의 영역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책임의 일환으로 앞 발제에서는 2021년부터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고려, 장려,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심의위원의 성비를 검토하는 등의 적극적 변화를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비가 맞춰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재고해야만 한다. 또한 발제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지역 문화재단 이사진의 성비 문제와 세대별 다양성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해봐야 할 지점이다.

‘성평등’ 아젠다를 수면위로 끌어내 정책에 녹여내고 있다는 지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를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당면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배려나 미투 이후 방어적 소모 작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점을 발견할 때는 한없이 아쉽기도 하다.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재단 내부에 성평등 교육과 자체 워크숍 부재 등 성평등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문제도 그 한축으로 읽혀진다.

다시 토론문의 초반부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돌아오는 가해자와 이를 비호하는 동료들, 공적 지원금으로 가해자의 성공적 복귀를 적극적으로 돕는 예술인들, 이들 사이에 깊어지는 문화예술계내부의 불신과 갈등, 편법과 거짓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어려운 지역 예술시장을 향한 도민들과 언론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문화재단의 현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건강한 방식의 문제제기가 불가능한 지역 예술계 내부의 고착화된 관계망에 있다. 보조금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예술인들의 우울한 현실에서 아무리 자정의 노력을 외친다 한들 해결될 리 만무하다.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가 다시 보조금을 받기 수월하고 보조금을 따온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만, 즉 좋은 평판을 가진 예술이어야만 한번이라도 예술활동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이 구조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굳어버린 것이다. 경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은 자신의 노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페이를 받아도, 작업도중 성희롱이 발생해도 고분고분하고 유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계속적으로 예술작업을 이어가기 수월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성평등하고 성폭력 없는 지역 예술계를 상상한다면 문화재단은 이 환경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그리고 노력의 성패는 디테일에 달려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반드시 오프라인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한다. 예술인 스스로 성평등규약을 만들어보고 성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하는 참여형 교육일수록 그 효과는 높을 것이다.

둘째로 **지원사업 방식을 새롭게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획일화된 예술 분야를 나눠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프로젝트나 아이템자체를 상상하는 콜렉티브 형식을 띤 제작방식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 기존의 단체에게는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지를 표기하게 하는 등의 지원서류의 항목 추가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장기 창작지원사업 지원서류 참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2021년부터 예술인 성평등인식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였는데 지원자, 지원단체의 대표가 대다수 청년이었던 점 또한 좋은 예시라 할 수 있겠다.

셋째로 **재단별 성폭력 대응규정(지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앞 발제에서 강조한바와 같이 재단이 직접 신고 접수하는 절차,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조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단 내에 인권담당관, 고충처리담당관과 같은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타 업무와 병행하는 실무자의 과중을 방지하고 예술인들의 복지와 처우, 인권에 대한 업무만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재단에 배치되어야만 재단이 사건해결의 적극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 남아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예술인의 현실은 여러모로 열악하다. 그럼에도 많은 예술인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소명의식을 가진채 예술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유야 저마다 다를 테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더 나은 예술현장'일 것임에 틀림없다. 더 나은 예술현장이란 무엇인가? 안전이 담보된, 노력한만큼의 생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리하여 결국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닐까?





# 2022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 다리미를 돌아보며

2021/2022 **다리미** 참여자

박진아(지산-여성주의 팟캐스트 살롱드전북/활동가)

## 전북지역 여성주의 팟캐스트

# 살롱 드 전북

since 2018

- 2018년부터 활동해온 전북지역 여성주의 대안매체 **살롱드전북**은 지역 여성의제 및 성평등 이슈발굴과 실천 활동 등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성평등활동가들과 협업과 연계, 네트워크 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2018 ~ 2022년 현재 **살롱드전북** 시즌 1-6 **전북전북** 기획제작팀  
에피소드 97개 살롱드전북 구독자 114/186명 / 재생 최대 1,070회 ~ 최소 35회
- /podbbang.com/ch/1768490 <https://www.instagram.com/salonjeonbuk/>



# 2022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 다리미를 돌아보며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무너트릴 수 없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오드리 로드 (Audre Lorde)

## 01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의미있는 목적 + 뚜렷한 가치 + 미래에 대한 청사진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 다리미를 시작으로

성평등한 가치로 지역의 새로운 비평문화를 만들기

지역문화예술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성평등비평담론을 향한 민관학(전북문화예술성평등네트워크)의 실천적 여정.

지역의 문화예술 작품을 적극적으로 읽고/보고/관람하고/해석하고 비평/비평가/비평하는 그룹양성.

## 02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교육과정

- > 2021 입문과정 2021.6/3-8/12 총10회 참석 18명/ 수료13명 (80% 출석과 비평문작성)
- > 2022 심화과정 2202.9/7-11/16 총10회 참석8명/ 수료6명
- > 주최 및 협력 : 8개 기관 및 단체(21년) /10개 기관 및 단체(22년)

6개 문화(관광)재단(고창·익산·완주·전북·전주/부안),  
전북대학교부설여성연구소,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전북여성예술인연대/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 03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교육과정 참여자 특징과 참여동기

- > 2021 입문 기초과정은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에서부터  
창작활동을 하지 않지만 미디어와 문학작품을 즐기는 시민, 지역의 활동가까지  
(단편영화제작자, 공예예술가, 에세이작가, 인권운동가, 영상창작자, 시각예술인, 그림책 작가, 음악치료  
및 연구강사, 지역활동가, 팟캐스터, 지역의 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있는 시민 등)
- > 여성주의 시각에서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비평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성평등예술비  
평을 배우고 싶다. 또한 지역에서 여성주의 비평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만나고 교류하고 싶다.
- > 2022 심화과정은 입문과정 수료생 및 지역에서 비평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문화예술인(문화예술 리뷰 제출)

## 04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교육내용

> 2021 기초과정 여성주의 시각을 배우다 + 여성주의 시각을 쓰다

1. 오리엔테이션 및 여성주의 예술비평이란
2. 여성주의 연극
3. 여성주의 문학, 시와 함께 읽기
4. 몸으로 여성주의 시각 표현하기
5. 교차적 관점으로 예술보기
6. 여성주의 시각예술 다시 보기
7. 여성주의 시각에서 영화 다시 보기

1/2. 비평문 구상하기(조별)

3/4. 실습 : 비평문 쓰기 (구성안 발표 및 조별 합평 및 멘토링)

5/6. 실습 : 비평문 합평하기

## 05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교육내용

> 2022 심화과정

(구체적인 작품 비평의 실제)여성주의 시각을 배우다 + (지역예술작품)여성주의 시각을 쓰다

1. 오리엔테이션 및 성평등관점에서 지역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작업의 필요성
- 2-5. 매체강연 1-4. 성평등 관점에서 시각예술/ 영상과 영화/문학작품/공연과 연극 다시 보기
6. 그룹별 쓰기 활동 1회 그룹별 이야기 나누기
7. 펜 워크숍 : 질문찾기 성평등관점에서 지역작품을 보기 위한 질문 찾아가기
- 8-10. 그룹별 쓰기 활동 3회 지역 문화예술작품 관람/그룹멘토와 심화 글쓰기/문화예술비평문 1편 작성
11. 공유회: 비평문발표/활동소감나누기/수료식

## 06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비평

> 2021 입문 과정 '스팀 steam' 문화예술 다리미 2021비평집 참조/ 후속 활동

- 시 캣콜링(이소호)
- 에세이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조/임경선)
- 소설 남십자자리(오정연)
- 웹툰과 만화 안녕 커뮤니티(다드래기), 바닷마을 다이어리(요시다 아카미), 조용한 세상의 미소(고사리박사)
- 영상과 영화 원더와 별나도 괜찮아, 거꾸러가는 남자, 노매드랜드, 모든 것을 잃기 전에
- 연극과 공연 버라이어티 모놀로그ing, 가스등, 기억의 길-뒤엉킨 시선(CDP무용단)
- 시각예술 및 전시 게릴라 가드닝-여행지(강유진), 세라 루커스 작품론
- 2021년 9월 후속작업 (수료생 중 4명) 지역작품(맥베스) 관람 후 1회 비평활동과 멘토링지원 비평문제출(3명)

## 07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지역예술작품비평

> 2022 심화과정 성평등문화예술 다리미 조별 같은 작품 선정 비평

- 문학 금파 조선의 마지막소리(김해숙)
- 영화 태어나길 잘 했어(최진영)
- 시각예술 2022 도래할 풍경-전주 매일 매일 내일  
창작과 노동을 둘러싼 여성예술가들의 질문과 성찰)

## 08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돌아봄 1

여성주의 시각에서 지역예술작품을 이해/해석/분석(비평)을 위한 이론과 비평문쓰기

> 지역 x 성평등관점의 여성주의 예술비평

> 여성주의 x 예술 x 비평/비평가 x 지역 (무엇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지역의 눈으로? x 지역예술작품? x 여성주의 비평?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

> 무게감 x 난해함 x 책임감

혼란과 무지/괴롭고도 즐거운 배움-확장과 성장/치열한 읽기와 사유의 글쓰기

비평이라는 버거움과 쓰기의 어려움 - 다리미들과 멘토

## 09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돌아봄 2

> 지역예술의 건강한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예술에 대한 비평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예술작품을 만나는 것, 성평등시각으로 예술비평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은 삶의 재현, 재현된 삶으로서 예술, 누가 무엇이 어떻게 재현되는가? 재현의 권력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해체, 재구성해보기

> 비평행위를 통해 작품속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비평하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지면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가?, 지역의 비평플랫폼과 독자는?

> 비평이란 타인의 삶에 접속함으로써 결국 나에게 접속하는 것, 내 안의 생각을 끌어내는 치열한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나만의 시선과 관점을 찾아가는 여정, 여성주의 비평의 언어로 재현 할 수 있는 (인식과 감수성, 시선과 관점)힘 기르기

# 10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돌아봄 3

### > 제언 1 기초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의 교육내용, 과정, 진행을 차별화하기

2021/2022 다리미 기초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은 교육내용, 진행방식 등 변별성이 없었다. 차이라면 심화과정(작품의 실제 비평과 조별 멘토링 중심)에서 지역예술작품을 관람, 선정해 모둠으로 비평글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기초입문 과정은 여성주의 시각에서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이론학습과 이해  
심화과정은 지역예술작품을 함께 보고, 토론, 비평하고 쓰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비평그룹활동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11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돌아봄 4

### > 제언 2 적절히, 꾸준히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고 사유할 시간과 (비평)글쓰기의 훈련을 적절히 꾸준히

2021/2022 다리미 과정은 매주 휘몰아치듯 다소 (일방적인) 지식과 내용이 전달된다.  
매회 강좌의 소감쓰기와 질문 찾기 등 회가 진행될 수록 형식적이 되었다.  
스스로 질문을 안고 충분히 사유하고 감각하면서, 서로의 경험과 차이를 배우는 만남과 대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온라인 강좌진행 어려움도 있었지만)

# 12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돌아봄 4

### > 제언 2 적절히, 꾸준히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고 사유할 시간과 (비평)글쓰기의 훈련을 적절히 꾸준히

여성주의 시각으로 다양한 매체비평이론의 이해(소화 시킬)와 실제(작품)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따로 또 같이 함께 자신의 경험과 인식, 여성주의 감수성, 비평을 위한 시선과 관점을 확장 시킬 교육과정과 내용 및 방법이 필요하다.

# 13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돌아봄 4

### > 제언 2 적절히, 꾸준히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고 사유할 시간과 (비평)글쓰기의 훈련을 적절히 꾸준히

- 기초 입문에서는 매체 별 이론강연 후 매체 이론강좌의 이해와 더불어 여성주의 시각과 감수성, 경험과 더불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써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 매체 강연 1. 이론강좌 / 강좌 이해 및 경험나누기 (여성주의 시각과 감수성, 인식 확장)  
작품 함께 보고 나누며 짧은 글쓰기

- 심화과정에서는 실질적인 비평활동을 위한 강좌 및 실제 중심, 관람 및 비평활동, 비평문쓰기와 합평

# 14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돌아봄 5

### > 제언 3 지속적인 비평활동을 위한 비평그룹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성평등예술비평학교 기초 입문과정은 2년 1회 진행으로 비평집단 양성 (양적 확대)  
입문과정은 6개재단과 전북예술인연대를 중심으로
- 성평등예술비평학교 심화과정은 소그룹활동으로 지역의 비평 활동의 연속성과 숙련을 위한 지원 방안 필요 (질적 성장-비평그룹활동지원 및 체계화 )  
심화과정은 전북대부설여성연구소와 전북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성평등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한 여성주의 의제발굴 및 지역 담론 만들기) 지식공동체 지지배배(여성주의비평론/비평 글쓰기-멘토링과 합평)를 중심으로
- 비평그룹조성, 비평활동기회 제공 및 지원, 지역의 비평플랫폼-환경조성과 지속성 확보.

감사합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 우리의 발제가 계속되려면

김미진(전북도민일보 문화교육부 부장)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우리 지역에서도 첫걸음을 떼는구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감사했다. 첫 단추를 꿰었으니 이제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벌써 5년이다. 2018년 초부터 한국 사회를 강타한 ‘#미투’ 운동이 없었더라면, 지역 내 열악한 문화예술계 안에서 이 역시도 매우 작은 문제로 치부되고 마는 성평등, 젠더 시각 등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의 탄생도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는 매번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견고하게 쌓은 벽에 조금씩의 균열을 낸다. 안타까운 일이다. 게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당시 나왔던 여러 제안들은 아직도 논의의 테이블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니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미투’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로 인해 발생한 운동이다. ▲‘미투’의 본질에는 남성에게 의한 권력 독점과 같은 문제가 드러나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이 얼마나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유리천장을 깨뜨려야만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돼 법과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등 같은 이야기들이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

‘미투’ 이후 여러 사회 현상 중에서도 남성중심적 사회구조에 균열의 조짐을 보이자 일각의 더욱 극렬해지는 현상은 매우 위협적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성차별이나 여성혐오의 문제제기에 대한 반격은 수시로 일어났다. 인터넷 상의 폐해는 더욱 심각했다. 그 흐름을 차단해야 하는데,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이 크다.

성평등한 일상을 누리는 일이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아직도 무엇을 더 준비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점에서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다리미의 활동은 소중한 불씨였다. 그리고 크고 작든 우리의 활동을 지지한다. 이제는 더 많은 이야기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야만 할 것이다.

발제자의 “비평이라는 버거움과 쓰기의 어려움”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바다. 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문화부 기자의 경우는 비평문을 자주 접하고 쓴다. 공연이나 전시, 책, 영화 등을 관람한 뒤 200자 원고 5~8매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 글을 쓸 때도 자기 검열에 더해 타인의 검열까지 검토하고 검토하게 되는 것이 비평문이다. 글쓰기의 고통, 글쓰기의 노동은 상당하다.

많이 듣던 이야기일 테지만, 글은 엉덩이로 쓴다. 이것은 팩트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성평등 시각을 견지한 글쓰기, 중요한 것은 지면에 발표되지 않더라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꾸준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에게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받는 일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글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공개되어야만 타인을 성장시킬 수 있다.

현재의 성평등문화예술비평학교의 모습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역 내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문화비평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비평그룹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발제자의 의견처럼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입문 과정을 지속적으로 열어두고, 질적 성장을 위한 심화 과정인 소그룹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절대 끊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

다.

더 나아가 욕심을 낸다면 각 시군에서 참여한 분들이 첫발을 들었으니 대표성을 잃지 말고 꾸준히 지역 내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람이다. 물론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에 이들의 활동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물론 기초재단에서 관련 예산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시대적 과업이다. 또한 어렵게 만든 결과물을 다양한 곳에서 읽고 공유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데, 그동안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몇 권 인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통감하고 내년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개인적 경험에만 머물지 않기를 기대한다. 개인적인 기억의 근원과 소외, 집단적 억압 등의 문제를 가슴 한구석에 밀어둔 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탐구하고 깊은 사유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길 바란다. 불균형으로 점철된 삶을 여러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고찰하면서 체급을 쌓아가길 바란다. 우리의 길이 보다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들의 발제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